

# 건설산업 이끄는 주역, 쑥쑥 크는 자긍심

- 총 14개 종목, 73명 입상 -



제21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10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제21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지난 10월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9월 13일 충북 음성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열린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73명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정순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장,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

사장 등 건설단체장과 수상자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상자는 현장 기능연마에 정진해 영예로운 수상의 큰 결실을 맺었다”고 언급한 뒤 “우리 건설산업과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역군들이며, 후배 기능인들에게도 귀중한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설기능인이 건설현장에서 충분히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회를 지속적으로 치르겠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기계설비분야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한 정해돈 회장은 “우수



기계설비분야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정해돈 회장

기술력은 품질 시공을 담보하는 밑거름이다”면서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모든 건설단체들이 합심하여 우수인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상자 중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소속으로는 건축배관 직종에 △이선학[(주)대청엔지니어링], 이재용[(주)연세기계설비], 박권희[영지기계설비(주)], 조남용[중원엔지니어링(주)], 강대용[대하산업

개발(주)] 씨가, △전기용접 직종에는 김종관[(주)아남설비사], 김태성[(주)금화PSC] 씨가 수상했다.

수상자 73여명 전원에게는 해당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과 함께 상금, 상패 및 부상이 수여됐고, 해외 산업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직종별 1위 입상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함께 전국 기능경기대회 본선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

▼건설기능경기대회 기계설비부문 입상자 명단(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소속)

직종	순위	성명	회사명	시·도·회
건축배관	1위	이선학	(주)대청엔지니어링	대전·세종·충남
	2위	이재용	(주)연세기계설비	경북
		박권희	영지기계설비(주)	충북
	3위	조남용	중원엔지니어링(주)	서울
		강대용	대하산업개발(주)	광주·전남
전기용접	3위	김종관	(주)아남설비사	울산·경남
		김태성	(주)금화PSC	서울

## 기계설비분야 수상자 소감 한마디



정해돈 회장(사진 오른쪽 네번째)이 제21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건축배관 1위

이선학\_(주)대청엔지니어링

### “도면을 충실히 따르는 시공”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의 소개로 참가하게 되었다는 이선학 씨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려고 참가했는데, 뜻밖에 1위의 성적을 거두게 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실력을 연마해 건축배관 분야의 장인이 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년 근무경력을 가진 이선학 씨는 “시공 전 도면을 매우 면밀히 살피는 편”이라며 “도면을 충실히 따르는 시공만이 고품질 시공의 노하우”라고 강조했다.

이선학 씨는 보일러 기능사, 공조기계냉동 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선학 씨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기술사 및 기능장 자격증을 확보해 해외 현장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건축배관 2위

## 이재용\_(주)연세기계설비



## “마무리 작업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재용 씨는 “김창수 (주)연세기계설비 대표이사님이 대회 참가를 권했다”면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재용 씨는 22년의 경력을 쌓아오는 동안 “시공 초반에도 중요하지만 시공 후 마무리 작업에 더욱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면서 고품질 시공 노하우를 밝혔다.

건축배관 기능사,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재용 씨는 “이번 대회 입상을 계기로 실력을 더욱 연마해 관련 분야 자격증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건축배관 2위

## 박권희\_영지기계설비(주)



## “사용자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히”

박권희 씨는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참가를 권유한 영지기계설비(주) 박건섭 사장님을 비롯해 함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동료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권희 씨는 “나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시공하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면서 “하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정밀하게 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25년 동안 건축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권희 씨는 “앞으로 소방기능사 등 관련 직종 자격증에 응시할 계획이다”면서 “이번 대회 입상이 큰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기에 주변 동료에게도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적극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 건축배관 3위

## 조남용\_중원엔지니어링(주)



##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지속 노력”

조남용 씨는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출중한 실력을 가진 많은 기능공과 실력을 겨뤄보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면서 “뜻밖의 입상이라 무척 기쁘며, 앞으로도 완벽 시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30년 경력의 조남용 씨는 평소 부실공사 예방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배관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담당하며 설비분야의 노하우를 쌓고 있다. 그는 “앞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배관 3위

강대용\_대하산업개발(주)



“주변 정리정돈 철저!”

강대용 씨는 “3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쌓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면서 “수상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장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대용 씨는 “작업에 앞서 주변을 정리정돈 하는 것이 시공할 때 오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작업장이 산만하면 마음도 산만해져 정밀시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시공 노하우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건설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꼼꼼한 시공을 통해 설비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용접 3위

김종관\_(주)아남설비사



“은퇴할 때까지 품질 시공에 노력!”

김종관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입상의 기쁨을 주변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서 “매우 숙련된 기술을 가진 주변 동료들에게도 대회 참가를 적극 권유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년 경력을 가진 김종관 씨는 제19회 건설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배관 3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배관기능장, 용접기능장, 보일러기능장 등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분야 베테랑이다.

김종관 씨는 “은퇴할 때까지 건축 현장에서 품질 시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스기능장 자격증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기용접 3위

김태성\_(주)금화PSC



“용접은 신속·정확하게”

김태성 씨는 “회사 소장님과 팀장님의 추천으로 참가하게 되어 큰 상을 받게됐다”면서 “짧은 근무경력이지만 열심히 기능을 익히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직종에도 참가해 보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태성 씨는 “용접작업 시 천천히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하자가 날 수 있으므로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용접하는 것이 시공 노하우”라고 말했다.

또한 김태성 씨는 “특수용접 기능사, 전기용접 기능사, 기계정비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노력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자격증에 꾸준히 도전해 보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